

육군3사관학교 제40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육군3사관학교 40기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명예로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된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땅을 수호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밤낮없이 고생해 온 학교장 박종달 장군과 교수, 훈육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별히, 자리를 함께하신 학부모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아들들을 훌륭하게 길러 나라에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국방의 현장으로 나가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질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외관계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군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경제력도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커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당당한 민주주의의 나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세력입니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지금 국방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통해서 현대화된 정예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문민화와 3군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지난주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가혹행위나 장병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군의 사기와 복지는 국방전력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 사회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간부들

의 숙소와 병사들의 병영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조국을 위해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임을 다할 때 우리 국민은 최상의 명예를 여러분께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3사관학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받아 자주국방의 간성이 되어 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